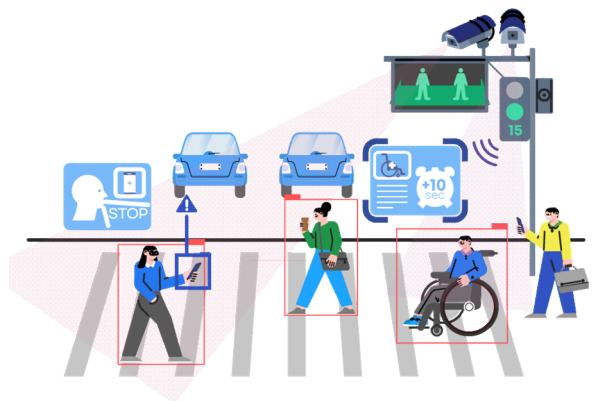


Monthly ITS

2026 August Vol. 231
www.itskorea.kr





18 대 뉴스

특 별 기 고

집 중 조 명

정 책 이 슈

법 령 제 도

월 간 토 픽

발 주 정 보

협 회 소 식

2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2026년 상반기 18대뉴스

12 지능교통체계(ITS), AI·센서 융합으로 여는 교통혁신의 미래

22 잠시 멈췄던 중국의 자율주행, 다시 시작한다

28 3D 공간 데이터와 지능형솔루션으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여는 '에스오에스랩'

34 온다바이스AI 반도체, 5W의 혁명 (주)답엑스가 여는 퍼지컬AI 인프라 시대

42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화 속도

44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47 대한민국 첫 K-AI 시티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48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50 '시험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53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4 법령 제·개정 동향

56 ITS 관련 주요 뉴스

62 공공조달 발주동향

64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월간소식

ITS Korea NEWSLETTER

2026.07

2026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상반기 주요성과

AI와 모빌리티의 시대,
ITS를 통해 일상의 안전과 편리함을 연결합니다.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1

ITS 국가·지방계획 연계 강화



ITS 기본계획 보완(26.6) 및 지자체 ITS 기본계획 수립 지원(26.6)

- 긴급차량 우선신호, V2X 서비스, 통합주차정보, AI 신기술 상용화,
디지털 도로정보 연계 및 지역 간 교통 서비스 격차해소 방향 반영

※ 청주, 충주, 청원, 아산, 안산, 군포, 안성 등 지자체 ITS 기본계획 수립(26.6. 기준)

성과의의

국가·지방 ITS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방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정책 기반 마련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2

ITS 산업통계 개발



ITS산업통계,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 개발 지원 대상 선정(26.1)

- ITS 산업 특수분류 개발 완료(25.12), 국가통계 개발 착수(26.3~)

※ '26.12까지 개발 완료 및 통계조사예정

성과의의

향후 ITS산업 통계는 국가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기업의 투자·해외진출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3

ITS 정책·사업 정보 공유 강화



정부 부처별 ITS 업무계획 및 예산 분석서 발간(26.2)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주요 부처의 지능형교통 관련 정책과 사업 분석

성과의의

부처별 정책·예산 분석으로 산업계 및 기업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4

유관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



국방·외교·안보 분야 연계 협력 추진(26.4)

- 한국국방외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인프라·재난대응·해외사업 공동참여 등 협력범위 확장

성과의의

국방·외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해 ITS 기술의 국방 적용과
해외 인프라 사업 연계, 신규 사업기회 발굴 기반 마련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5

ITS-방산 기술연계 협력



ITS-방산 기술연계 간담회 개최(26.5)

- 국내 ITS 기업 6개사·방산기업 8개사 참여, 센서·통신·보안 기술과
무인차량·안티드론·경계탐지 기술 간 연계방안 논의

※ 재정경제부(수출플라자지원단),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참여

성과의의

공동사업 모델 발굴과 수출패키지화로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상생형 해외진출 기반 마련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6

산업생태계조성및지역협력강화



지역발전협의체활동강화및산업생태계조성TF추진(26.4)

- 강릉 ITS 세계총회 연계 지자체 협력 강화,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공유·확산

성과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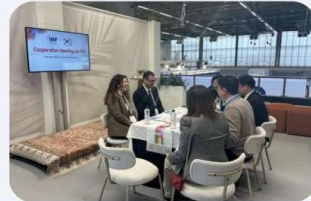
현장 중심의 전문성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ITS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확산 기반 조성

ITS Korea NEWSLETTER

2026.07

07

K-ITS 해외 수출성과 창출



인트라팩* K-ITS 워크숍 개최 및 국내 기업 수출활동 지원(26.3)

* 세계 최대 교통 모빌리티 전시회(네덜란드 암스트레담)

- 국내 기업의 혁신 솔루션 소개, 현장 기반 수출성과에 E포스·BYD·노보텍 등 창출
- 국제도로연맹(IRF)과 협력 기반 마련, 차기 전시회(28) 한국관 부스 선정

성과의의

국내 ITS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K-ITS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수출 기회 창출



08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 준비 본격화



국제 합동회의(이사회·국제프로그램위원회)로 성공 개최 기반 마련(26.3)

- 99개사 396개 전시부스(회원사 34개사, 161부스)
- 15개사 14.2억원 후원(회원사 9개사 10억원) ('26.6.기준)

※개최기간: '26.10.19.~23.

성과의의

글로벌 전시·후원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와 국내 ITS 기업의 국제 홍보·비즈니스 기회 확대 기반 마련



09

글로벌 ITS 네트워크 확대



아태·미주 잇는 국제 네트워크 강화

- '7ITS News'* 공동 온라인 세미나 개최로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대(26.6)
- *중국 ITS 산업 전문 미디어 및 글로벌 정보 플랫폼
- 미국 교통연구위원회(ITRB) 연례회의 및 CES 참석으로 미주 교통기관과 협력(26.1)

성과의의

아태지역과 미주를 아우르는 글로벌 협력망을 확대해 K-ITS 정책·기술 확산과 국제사업 발굴 기반 강화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0

KOLAS 공인기관 역량 강화



성능평가



공인시험기관 평가

AVI·VDS 공인검사 수행 및 LTE-V2X 공인시험기관 지정 추진

- AVI·VDS 성능평가, KOLAS* 공인검사로 안정적 수행('15년~)
- LTE-V2X 분야, 공인시험 영역으로 확대 추진

* KOLAS: 시험·검사 역량을 국가가 인정해 발행 성적서의 공식 효력을 보증하는 제도

성과의의

검사에서 시험까지 공인역량을 확대해 ITS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1

해외 ITS 표준정보 제공 강화



유럽·아세안 표준을 분석한 「해외 ITS 표준현황 분석서」 배포('26.1)

- 유럽 표준화기구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표준화체계, 교통관리센타·교통신호·교통정보처리·전자지불 분야별 주요 표준 분석

성과의의

해외시장별 기술·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여 제품 개발과 인증 대응,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12

ITS 구축·시공기준 현장성 강화



기술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2026 ITS 표준품셈」 개정(26.1)

- 스마트 바닥신호등·RSE 등 현장 혼용 용어 정비,
- 레이더식 스마트교차로·노변장비 설치기준 등 해설·가이드라인 보완

성과의의

ITS 사업의 공사비 산정과 시공기준을 명확히 하여
발주기관과 기업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구축 품질과 사업 신뢰성 향상

13

도로·모빌리티 AI 상용화 본격 지원



AI 응용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AX-Sprint 본격 추진(26.4~)

- 도로 운영·안전 및 모빌리티 분야 총 12개 AI 상용화 사업 선정(26.6)
- 비즈니스 모델 개발·양산체계 설계·기술이전·지식재산권 획득·시험인증·실증 등 상용화 전 과정 종합 지원

성과의의

유망 AI 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도로·모빌리티 산업의 AI 전환 촉진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4

ITS 혁신기술 현장실증



도로안전·SI 교통관제 혁신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실증(~26.7)

- 작업구간 크루즈컨트롤(ACC)차량감속유도기술 국토부차관시연(26.7)
- 역주행 차량 검지·진입차단 기술 실증(국도38호선 19.7km)
- 위험영상 CCTV 우선표출상황판(부산형), 화재장애물등물발상황복합검지(대전형)

성과의의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도로안전 향상과 실제 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5

ITS 혁신제품 지정 지원



우수제품 시장진출을 위한 사전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 지원(26.3~)

- 가로·세로 회전형 카메라(한일STM, '26.3. 지정완료)
- 사선구조 통풍형 LED전광판(오스코) 혁신성 검토 및 추천서 발급 완료

성과의의

우수 ITS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와 기술 사업화를 촉진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6

인력양성 2개 부문 최고등급 달성



산업맞춤형(26.6), 하이테크형(26.5) 공동훈련센터 최고(S)등급 달성

-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결과, 산업맞춤형 5년 연속(누적 7회), 하이테크형 누적 2회 최고등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 실무과정 38개 과정 50회 운영, 재직자 589명 역량강화 지원(26.6 기준)

성과의의

산업 수요와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교육 성과를 통해
ITS-모빌리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성 강화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7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규 지정



중소·중견기업 SI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26.3~)

- 기업진단부터 업무과정 분석·재설계,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운영, 전문가 현장 코칭까지 연계 지원

※ SI 활용 기초훈련과 데이터·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전문과정 운영

성과의의

모빌리티 기업의 SI 전환을 현장 중심으로 지원해
재직자의 실무 활용역량과 기업의 AX 대응역량 강화



ITS Korea NEWSLETTER

2026.07

18

공공부문 ITS 전문교육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ITS·AI·모빌리티 전문 위탁교육 시행(264~)

- 경기도·여주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광명시·속초시 등 지자체 참여
-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대상 수요맞춤형 위탁교육도 병행 시행

성과의의

민간 재직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ITS 정책·사업 수행역량 강화





지능형교통체계(ITS) AI·센서 융합으로 여는 교통혁신의 미래

서론

우리나라의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정보 제공에서 자율주행 지원까지 지난 30년간 꾸준히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CCTV와 LiDAR, AI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센서와 기술이 교통단속 시장에 접목되며, 단순 적발을 넘어 실시간 흐름 분석과 예방형 안전관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 기술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이륜차 불법운행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ITS는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모빌리티 구현, 그리고 스마트도시 운영의 기반으로 확장되며 대한민국 교통체계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도입 30년, ITS 진화의 궤적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해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
편집부장
엄 호 식

ITS의 서비스 분야에는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 유통, 부가 교통정보 제공, 지능형차량·도로, 화물운송 등이 있다.

우리나라 ITS는 △도입단계(1993~2004년)에 주요 고속도로에 CCTV, 도로전광표지판, 차량검지기 등을 설치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성장 및 확산 단계(2005~2012년)에는 사당~수원 구간을 시작으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이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확대됐다. 또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ITS 센터가 구축되면서 일반국도의 교통정보 수집·제공도 본격화됐다.

△성숙단계(2013~2022년)에는 민간에서 4G(LTE) 기반의 스마트폰 등 첨단 IT 기기 보급 확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국 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성하게 되면서 도로전광표지판과 TV, 라디오로만 제공받았던 교통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받게 됐고, 이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교통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2014년에는 웨이브(Wave) 통신 기술과 GPS, 정밀지도, 보안 기술 등을 포함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TS)의 시범사업이 대전~세종 고속도로·국도 등 실도로 구간에서 시작됐고 2018년부터는 서울, 제주, 울산, 광주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현재와 미래(2023~2030년)에는 지난해 열린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와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ITS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2030년까지의 미래 ITS를 책임질 'ITS 기본계획 2030'은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도로체계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성, 효율성, 혁신성, 편리성 등 4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입·구축된 ITS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주요 활용 방법으로는 ①교통정보 제공과 ②교통관리 ③안전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①교통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에 따라 '495개 기관·기업' 등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민자고속도로 등 '138개 유관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교통관리 기관 홈페이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과 '방송'(KBS, MBC, SBS, TBS 등에 소통 상황과 CCTV 영상 제공 / 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에 교통방송 리포터 상주), '내비게이션'(DMB 방송사업자를 통해 제공), '휴대전화'(스마트폰 앱, 일반 휴대폰, ARS 등으로 제공), '도로전광판'(2714개소에서 소통·우회정보, 소요시간 등 안내), 'Open API'(민간사업자 및 개인에 교통 소통 정보, CCTV 영상, 공사·사고 정보, 도로전광표지 표출정보 등 제공)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②교통관리는 전국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과 정체·돌발상황 파악, 신호 제어 등을 수행한다. 특히 CCTV 등을 통해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공사, 집회 등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전파·대응해 소통(Traffic flow)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③안전관리는 도로상 센서로 안개와 결빙, 붕괴, 급커브, 시거불량 등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시·경고해 위험회피 및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특히, 도로유실이나 터널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진입통제와 대피지원, 우회경로 안내 등으로 피해 최소화 및 2차 사고 예방에 힘쓴다. ITS 구축으로 인한 효과로는 ①교통혼잡 완화와 ②녹색교통 ③신성장동력 육성을 꼽을 수 있다.

①교통혼잡 완화: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 ITS 적용 시, 교통 혼잡 완화·사고 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11조 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행속도는 3.1% 증가했고, 사고건수는 23.4% 감소하는 등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②녹색교통: ITS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디지털 도로교통체계 구현으로 연간 1조 5,000억원의 사회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전국 주요도로의 ITS 구축을 통해 교통사고 40% 감소 및 온실가스 양의 감소로 620억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③신성장동력 육성: ITS는 C-ITS 도입 등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새로운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된다.

ITS 및 C-ITS 도입 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2025 도로업무편람)

구분	미구축	ITS	C-ITS(추정)	비고
혼잡비용	28조 5,000억원(2010년)	연 4,300억원 절감	연 8,000억원 절감	
통행속도(도심)	20km/h	최소 15% 증가		
통행시간(지역 간)	18시간(2002년 설 명절)	7시간(2012년 설 명절)		서울-부산 기준

2025년 ITS 시장, AI 기반 교통 위반 검지로 패러다임 전환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장은 AI 기반 교통 위반 검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업계는 단순 포착형 단속에서 주행 흐름 분석형 단속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정확도·통합성·운영 안정성이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속도·신호위반 단속과 번호판 인식, AI 영상 분석 등 첨단기술이 결합하면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노비텍은 “2025년 ITS 시장은 성장 국면이나 하드웨어 단품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속도·신호위반 단속과 자동 번호판 인식(ANPR)·번호판 인식(LPR), AI 영상 분석 등으로 예산과 관심이 이동하는 흐름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카메라 자체 성능만으로는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도와 통합성·운영 안정성·표준 호환성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평가했다.

라온로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예산 축소와 사업 감소로 위축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AX 스프린트 추진과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등을 계기로 2026년부터는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렉스젠은 “단속 중심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과 데이터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평가했다.

뷰런테크놀로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교통 위반 검지 시장에서는 단순 검출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AI가 화두가 되며 단순 단속과 위반 검지를 넘어, 실시간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 관제 체계로 전환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오토엘은 “단순한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형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영상 분석과 번호판 인식,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센서 기술이 결합하면서 검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자자체 중심으로 스마트 교차로 및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텔은 “대외 불확실성과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지연으로 전반적인 투자와 발주가 둔화되며, 시장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수동적 관제에서 정보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및 AI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ITS 제품&솔루션 구축 사례

구 분	도입 목적	구축 및 성과
라온로드	- LAON TMS(Traffic Management System)는 스마트 교차로 영상분석시스템(TAS)에서 수집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차로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교통 특화 관제 시스템 - 교통량, 대기행렬, 위반 및 돌발 이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교차로별 운영 효율 개선 포인트 도출 - ITS 데이터와 방범 화재 CCTV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 연계로 통합관제 가능한 구조 제공 - GIS 기반 시각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교통 및 안전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교통 운영 환경 구축	- 안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등 국내 주요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ITS 구축 레퍼런스 보유 - 안양시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 교차로 기반 교통 운영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도시 교통 관리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제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안양시의 ITS World Congress '명예의 전당 공로상' 수상에 기여
렉스젠	00대교 접속도로 돌발상황 감지 시스템	- 정체·정차·역주행 등 다양한 이상 상황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 단축 및 2차 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성과 확보
뷰런 테크놀로지	터널용 교통량 분석, 역주행 감지, 교통 흐름 모니터링 등	-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인 구름지하차도 입구에 라이다 솔루션 적용 -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흐름 모니터링은 물론, 역주행 및 돌발 상황 즉각 감지해 터널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최적화에 기여
핀텔	단순한 교통 통제를 넘어, 차량 흐름 최적화부터 보행자 보호, 도심 내 돌발 위험 (사고, 재난 등)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안전망' 통합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ITS 전 분야에 걸쳐 AI 영상분석 기술을 폭넓게 구축 - 교통단속 분야: 경찰청과 협력해 서울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합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 완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인 성능평가 전 항목 적합 위반행위 구분율 100% 달성으로 기술 신뢰도 공식 입증 - 스마트교차로 분야: 안산시·고양시·양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 및 헝가리 해외 시범 사업까지 확장해 국내외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음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분야: 서울시, 광명시, 연천군, 시흥시 등 전국 10개 이상 지자체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충돌예측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기능 안전 시스템 구축 - 단순한 교통 위반 단속을 넘어 차량 흐름 개선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능동형 도시 안전망의 성공적인 상용 레퍼런스 확보

ITS·AI 기반 교통단속, 국민 안전 강화 본격화

경찰청은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했다.

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해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단속장비는 정차금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영했으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부로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했다. 경찰청은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을 대상으로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전국 꼬리물기 잦은 핵심 교차로 총 883개소)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꼬리물기에 이어 끼어들기와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2026년 업계가 직면한 ITS 교통단속 현안과 전망

정책과 현장에서 AI 기반 교통단속 장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업계 역시 기술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은 단속 대상의 확대와 인프라 현대화 요구, 그리고 AI 영상 분석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시점으로 평가된다.

그린이티코리아는 최근 현안으로 ‘단속 대상의 확대’와 ‘인프라의 현대화 요구’를 꼽았다. 안전벨트와 스마트폰 사용, 구간 평균속도에 이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특성상 전용 후면단속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화된 루프코일 방식의 차량검지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비굴착·비침습형 신기술 검지 장비가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세연테크는 AI 영상 기반의 검지 확대에 따른 오검출(False Positive)과 법적 증거 인정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핀텔은 AI 기반 꼬리물기 단속 본격화 및 전국 확산과 다기능 통합 단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사후 적발’에서 ‘상시 정밀 감시’로의 단속 패러다임 전환을 이슈로 꼽았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단일 장비로 꼬리물기,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동시에 검지하는 다기능 통합 단속이 표준으로 자리잡는 추세이며, 장비 수의

감소와 유지보수비 절감, 운영 효율화 요구가 맞물리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솔루션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영상 분석 기술의 고도화로 교통 단속이 '인력 의존형'에서 '데이터 기반 자율 운영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6년 ITS 교통단속 시장에 대해 노비텍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단속 카메라와 ANPR 시장 모두 연평균 약 10%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카메라와 AI 분석, 운영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통합형 솔루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스마트도시 구축과 교통 관리 고도화, 자동 단속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2026년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기술 기반의 질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온로드는 국내 정책 및 예산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시장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스마트도시 및 교통 디지털화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은 연평균 5~10%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재편되는 반면, 해외 및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렉스젠은 지능형 교통 인프라의 구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뷰런테크놀로지는 교통 인프라가 단순한 '단속' 도구에서 벗어나, 고정밀 데이터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을 돕는 '자율협력주행 지원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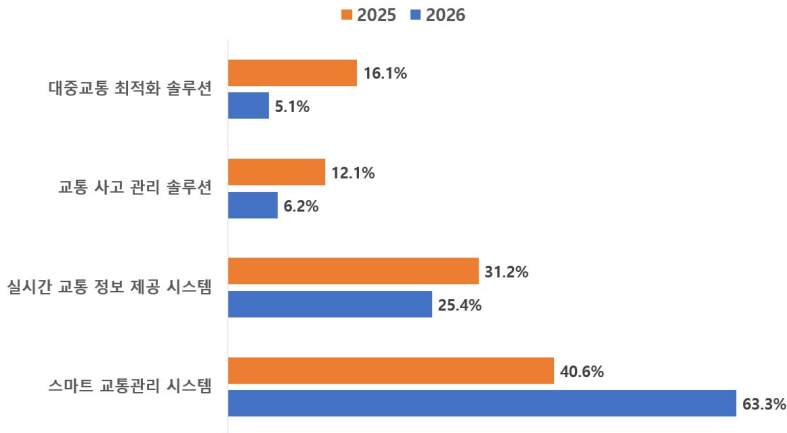
오토엘은 AI 기반의 고도화와 센서 융합 확대, 스마트 교차로 확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장비의 공급이 아닌 통합 솔루션과 플랫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과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ITS 제품&솔루션에 대한 보안인들의 생각은?

보안산업 종사자 및 사용자들은 ITS 제품&솔루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번 설문은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큐리티월드>와 <보안뉴스>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655명이 참여했다.

ITS 솔루션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대응 및 감소'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대응 및 감소'가 20.9%, '안전사고 대응 및 감소'가 17.5%, '환경오염 대응 및 감소'가 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 혼잡대응 및 감소'는 지난해에도 52.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대응 및 감소'가 9.0%에서 20.9%로 선택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또, '안전사고 대응 및 감소'는 지난해 16.6%가 선택해 올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ITS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은 솔루션

ITS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은 솔루션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63.3%가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선택했다. 이는 전년도 40.6%보다 20% 늘어난 수치로 스마트 교통관리에 대한 편의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25.4% (2025년 32.1%)는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을, 6.2%(2025년 12.1%)는 '교통사고 관리 솔루션'을 그리고 5.1%(2025년 16.1%)는 '대중교통 최적화 솔루션'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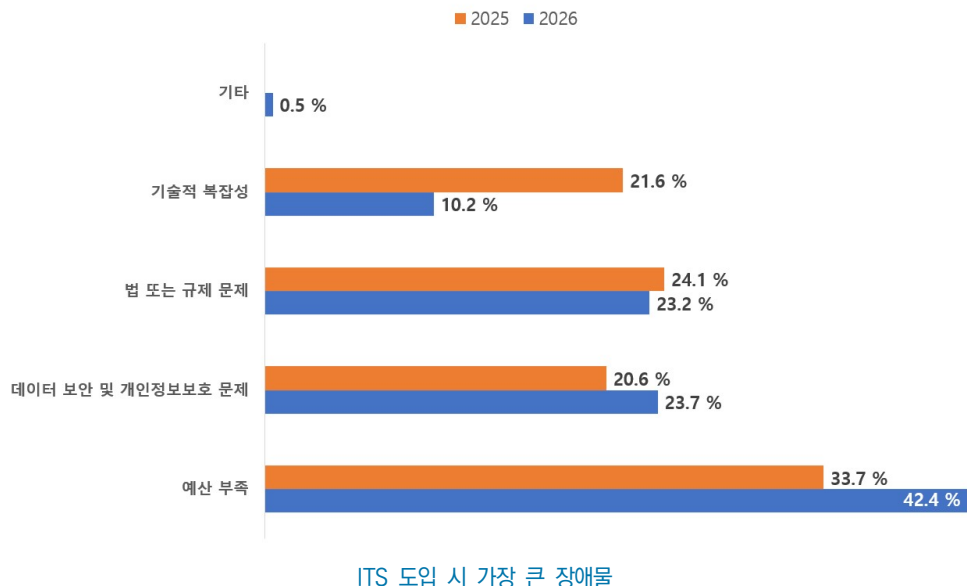
ITS 솔루션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의 정확도'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의 효율성' 19.8%, '초기 구축비용' 16.9%, '유지 보수 비용' 11.9%, '기술의 안정성'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기술의 안정성'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자 만족도' 22.6%, '환경 및 사회적 효과' 17.6%, '비용의 효율성' 15.6% 등의 순이었다.

ITS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3%가 '실시간 교통 데이터 제공'을 선택했으며, 24.3%는 '교통 신호 자동 제어'를, 14.1%는 '사고 예방 알람'을, 7.9%는 '차량번호 인식 정확도 향상'을 선택했다.

ITS에서 가장 체감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교통 혼잡 완화'가 5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고 예방'이 27.1%, '대중교통 편의성'이 13.0%, '환경개선'이 5.1%의 선택을 받았다.

향후 3년 이내 가장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로는 'AI 기반 예측 기술'이 1/3이 넘는 75.2%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대중교통 최적화'와 '환경친화형 ITS'가 각각 8.5%와 7.9%로 뒤를 이었다.

ITS 도입 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예산 부족'이 42.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23.7%, '법 또는 규제 문제'가 23.2%, '기술적 복잡성'이 10.2%로 뒤를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에도 '예산부족'은 33.7%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법 또는 규제 문제' 24.1%, '기술적 복잡성' 21.6%,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20.6% 등의 순이었다.



2026 ITS 교통단속 시장 전망과 5년간 패러다임 전환

차세대 ITS 교통단속 시장은 단순한 위반 적발을 넘어 예측·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AI·데이터·센서 융합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카메라는 단속 장비를 넘어 교통안전 인프라로 진화한다. 2026년 이후 5년간 ITS는 멀티 위반 검지와 자율협력 주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업계의 시각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이루는 분위기다.

그린이아이티코리아는 고정식 카메라 중심에서 이동식·드론·차량 탑재형 단속으로의 플랫폼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단속 항목 역시 과속과 신호위반을 넘어 이륜차와 보행자보호 위반·불법 개조 차량 등으로 확장하면서 다종 위반을 위한 단일 카메라로 복합 검지하는 멀티 위반 검지 일체형 시스템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비텍은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단순한 단속 중심에서 예측과 자동화·통합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며, 카메라는 단순 영상장비를 넘어 실시간 판단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라운로드는 ITS 교통 위반 검지 분야는 객체 검지 기반의 AI에서 벗어나, VLM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맥락 이행형 분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규칙 기반 또는 단일 이벤트 검지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통합해 상황 단위로 판단하는 구조가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엣지(On-Device AI)와 센터(VLM) 간의 분산형 아키텍처가 일반화되면서 실시간 대응성과 분석 정밀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렉스젠은 단속

중심의 ITS에서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히며, ITS 산업은 단순한 단속 기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단속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사용자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조연도 덧붙였다.

뷰런테크놀로지는 기존의 사후 단속 위주의 시스템에서 라이더 기반의 고정밀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 예방 및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C-ITS)로의 완전한 전환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연테크는 단속 중심에서 AI 기반의 예측-예방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ITS는 위반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면, 기업 간 협력과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기술 공유가 중심으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토엘 역시 사후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라이더와 영상,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의 융합과 V2X(차량-인프라 간 통신) 기술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넘어 자율주행과 연계된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교통 운영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제, AI 고도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단일 장비 중심이 아닌 플랫폼 중심의 통합 솔루션 시장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핀텔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의 고도화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수동적 단속을 넘어, 사고 위험도-돌발상황을 AI가 선제 예측하고 신호를 자율 제어하는 능동적 교통안전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발 장비 중심의 단속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AI-ITS 센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속되면서 ITS 위반 감지 시스템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차량과 인프라 간의 실시간 통신(V2X) 핵심 노드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TS 교통단속, AI 시대의 안전 인프라로

ITS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관리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안전 인프라와 스마트도시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단속은 AI와 센서 융합을 통해 '정밀 감시'와 '예방형 안전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과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ITS 교통단속 분야는 기술 경쟁력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 총회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미래 교통 혁신을 논의하는 장으로, 대한민국 ITS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ITS는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주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시 멈췄던 중국의 자율주행 다시 시작한다

중국 로보택시가 멈춘다

2Q26 중국 로보택시 운행 중단

중국은 26년 4월 자율주행 로보택시 신규 운행 허가 발급을 중단했다. 발단은 26년 3월 말 우한시 도심과 고가도로에서 Baidu 로보택시 Apollo Go가 멈춘 후 차량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여러 승객들이 차 안에 고립되면서 패닉 상황이 만들어졌다. 중국 당국은 운영 도시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점검 및 안전 감시 강화를 지시했으며, 신규 허가/새로운 시범 사업 개시/타 도시 진출 등이 모두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26년 6월에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발급이 재개되었는데,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일부 도시에서 영업 허가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에도 26년 7월부터 일부 차량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우한에서 발생한 시스템 에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직 이런 사고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Baidu가 여러 자율주행 총 주행거리 등을 내세우지만 과거 차량 사고 내용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산업/미드스윙
박 찬 솔 연구위원

25년 말 Baidu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Hello 로보택시 사고가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 불가로 자동 안전 프로토콜이 시행된 시스템 장애라는 설명)

사고 이후 업계의 변화

26년 7월부터 신규 사업 허가가 재개되면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

1) 비상 자동 대비 알고리즘의 의무화(관제 서버나 통신 마비 시에도 안전지대로 이동해 비상 주차하는 기능), 2) 비상 통신망과 관제 이중화(서버 마비로 사고 당시 연결이 안되었던 SOS센터에 별도의 통신 채널과 출동 체계를 중복으로 두는 것), 3) 안전요원을 배치한 단계적 운행 재개(현장에서 시스템 멈춤에 즉각 대응 가능한 인원 배치), 4) 법적 책임 명확화(고도 자율주행 사고 시 제조사/서비스 운영사가 1차 책임 부담) 등이다.

BYD에게 온 기회?

자율주행에 대한 책임진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는 5월 말 자율주행 기술 대중화와 차량 지능화 전략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도시 자율주행 안전 책임 보장을 선언했다. City NOA 기능 사용 중 사고에 대해 1년간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5년에는 지능형 주차 안전 책임 보장 제도를 시행했는데, 도시 자율주행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과실 사고에 대해서 차량 수리비, 인적 피해, 제3자 재산 피해까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다. BYD의 자율주행 기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중국 자율주행 성장 속도는 이제 더 가속도가 붙어

중국 당국은 2026년 6월까지 자율주행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지원 정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율주행 고도화에 기업이 책임 소재가 있다는 논의가 명확해졌고, BYD는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다만 책임을 진다는 것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끝난 도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시스템 과실(System Failure)이 명확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BYD의 자율주행 개발 히스토리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사업자로

BYD는 전기차의 HW 핵심 분야 배터리, 모터, 전력 반도체 등의 원가 절감에 능력을 보여주고 세계 최대 친환경차 제조사로 올라섰다. 기업의 초기에는 HW 중심의 차량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시장이 SDV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술적, 조직적 변화를 이뤄냈다. SDV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외부 테크 기업들과 합작/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자체 지능화 플랫폼을 수립하고, 반도체 양산까지 단계별 내재화 단계를 실행해 나갔다.

외부 파트너십에서 자체 역량 강화까지

파트너십의 경우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는데, Horizon Robotics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자율주행 생태계와 기술 연합을 시도했다. 특히 AI프로세서, 컴퓨팅 플랫폼, 비전 인식 알고리즘, 다중 모달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게 된다. 모멘타와도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자율주행 업체로 한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활용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해에 Baidu와도 내비게이션 연동과 자동 주차 기능을 차량에 도입하게 되며, 외부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결정을 한다.

동시에 엔비디아/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컴퓨팅 HW도 차량에 결합하는 선택을 한다. AI모델 학습 및 가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결정한다.

23년부터는 내재화로 전환하는데, R&D 역량을 확충한다. 8월부터 외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계약들을 종료하기 시작하고, Liao Jie 등 Horizon Robotics 인력을 꾸준히 영입한다. 규모를 보면 자율주행 관련 인력만 1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확보한다.

이것은 7월부터 선전시에서 조건부 L3 승인(고속도로 실도로 테스트 가능)을 받았기 때문인데, 중국 완성차 업체 중에서 최초로 받은 만큼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천신의 눈'이라는 독자 자율주행 브랜드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모델 Denza N7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다.

24년부터는 아키텍처 통일에 힘을 쏟는데, 연초부터 Xuanji 아키텍처를 공개하면서 의지를 보인다. 개념은 하나의 중앙 제어칩, 클라우드/온디바이스 프로세싱, 차량 내 네트워크/5G/위성 통신 네트워크, 감지/제어/데이터/기계적 실행 체인을 구축한다.

Deepseek 대형 언어 모델도 아키텍처에 연동하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 투트랙 전략으로 외부에서 검증된 화웨이 ADAS Qiankun을 오프로드 브랜드에 적용하면서 자율주행을 모델 채택의 유연성도 보여주었다.

올해의 경우 저발열, 효율적 전력 소비가 가능한 자율주행 전용반도체 Xuanji A3를 선보이며 반도체 수직 계열화 달성을 강조했고, 플랫폼 안에 스마트 콕핏, 자율주행 ADAS, 전동 파워트레인 도메인의 통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좋은 업계 평가를 받아냈다.

반도체의 경우 고가는 자체 생산, 저가는 Horizon Robotics에서 생산하면서 여러 모델 라인업의 지능화 역량을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2026년 자율주행 트렌드

반도체 내재화

BYD와 함께 Xiao Peng, Li Auto, Nio 등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독자칩 양산(SMIC 7nm 이하 공정 생산능력 개선 효과)에 성공해 자체 차량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6년 HBM칩 차량 탑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26년 고급 차종의 HBM 사용 비중은 30%를 넘을 것으로 업계가 보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전자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업체들은 SW/HW 역량이 동시에 개선되며, 최근에는 자율주행 옵션이 차량 엔트리 모델까지 확대되며 Mass Market을 침투하고 있다.

생성형 모델의 진화와 차량 연동

자율주행이 LLM 기술의 활용으로 비전 인식 수준을 뛰어 넘고 있다. LLM과 VLM으로 발전한 AI 기술은 AI의 정보 프로세싱 능력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Explainable AI에 기여한다. 26년에는 End to End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콕핏이 본격 양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장기 기억, 다중 시나리오 등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본다.

차량 OEM사의 자체 기술력 강화

화웨이나 모멘타라는 옵션을 두고, OEM사들은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고 있다. SW에 종속되지 않고, OEM의 미래를 직접 설계해 나가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자율주행 서비스 구축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먹거리 측면에서 지금부터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처리/가공/튜닝 등의 역할을 만들어 자율주행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보유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협상력 향상 측면에서라도 OEM은 자체 자율주행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중심이 변화

자율주행의 선두에 있다고 판단되는 니오, 지리, 모멘타, 화웨이 등은 월드모델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 End-to-End는 영상 데이터의 패턴 인식 및 규칙 학습 등을 통한 상환 판단이라면, 월드 모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을 물리 법칙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상황을 맞이하면 추론하고, 검증하고, 경로를 택하는 과정이 테스트 가능해진다. VLM을 지나 더욱 더 자체 판단 능력의 강화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월드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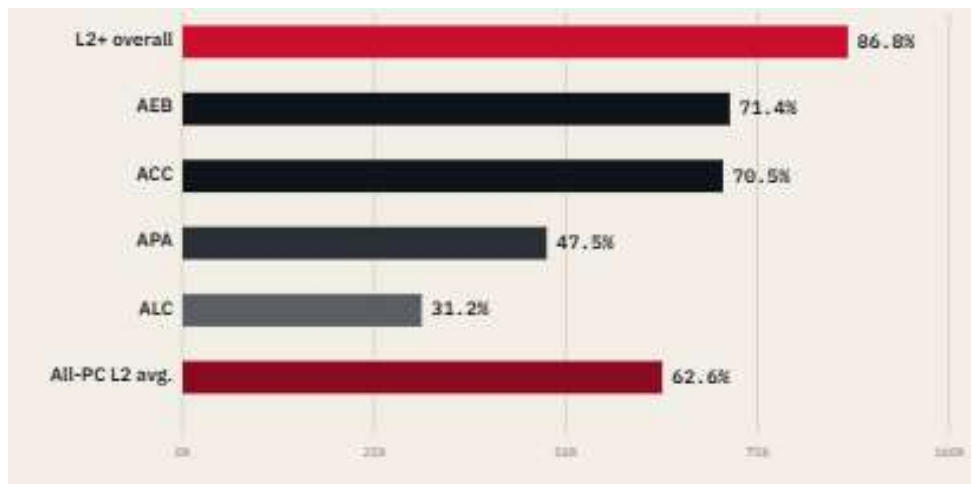
LIDAR 사용은 업체별로 상이

비전온리의 문제는 라이다 가격의 하락으로 더 이상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이다는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다. 또 브랜드의 철학에 따라 라이다 사용 여부가 갈린다. 샤오핑은 비전 온리,

니오는 풀 센서 퓨전 전략을 고수하는 등 극명한 차이다. BYD는 그 사이에서 차량 라인별 라이다 옵션이 별도로 있다. 소비자에게 선택을 맡긴다. 샤오미는 25년 3월 SUV 사고 이후 사고 차량이 라이다 미탑재 차량이었다는 사실이 여론의 비판을 받아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26년 신형 SUV에 라이다를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중요해지는 수출

중국 정부가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에너지차를 제외시키면서 수출이 중요해졌다. 해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수출 가능할지 지켜봐야 된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력으로 리브랜딩하고, 안전/안정성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보인다. CKD(부품 판매) 등 해외 수출을 확대하며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데이터 등이 중국 외 지역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레벨별로 속한 기업들의 비중



3D 공간 데이터와 지능형솔루션으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여는 '에스오에스랩'

주식회사 에스오에스랩(SOS LAB)은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라이다(LiDAR)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첨단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어온 센서 및 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에 국한되었던 기존 라이다의 한계를 넘어, 도로·공항·휴게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되는 '지능형 공간 데이터 레이어'를 구축하며 공공 인프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의 핵심 경쟁력은 외부 진동과 충격에 강한 완전 고정형 3D 라이다(ML 시리즈)의 우수한 하드웨어와, 이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결합에 있다. 라이다 센서 1대로 최대 62면의 주차 공간을 99.7%의 정확도로 감지하는 주차 안내 시스템 'LPGS SPOT®'과 김해공항 국제선 등에서 99.44%의 인식률을 기록한 군중 혼잡도 분석 솔루션 'LCAS QMAP®'은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이미 그 상용 가치를 검증받았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술시연에 참가하는 에스오에스랩은 단순 부스 전시를 넘어, 강릉 도시 공간 내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1초 미만 응답 속도의 실시간 주차 안내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나아가 C-ITS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정밀 3D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스마트 모빌리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

“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정밀하게
감지하여, 안전한 이동을 만들겠습니다. ”

-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술시연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글로벌 시장에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에스오에스랩은 지난 10년간 라이다를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로봇, 그리고 도로와 시설이라는 인프라까지 하나의 센싱 체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교통 환경 전체가 달라진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한국공항공사와 김해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에는 라이다 기반 여객 유동량·혼잡도 분석 솔루션을 김해공항 국제선에 구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항, 휴게소, 종합운동장, 고속도로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에 라이다와 관련 솔루션 공급·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ITS 세계총회는 이러한 인프라 레퍼런스를 전 세계 교통 정책·기술 관계자 앞에서 실제 운영 환경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전시장 부스 안의 데모가 아니라, 총회가 열리는 강릉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이다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시범 기술이 아니라 이미 공공 인프라에서 상용 운영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인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처럼 이동 수단과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데이터 레이어를 한국 기업이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라이다 기술을 선도하는 에스오에스랩만의 독보적인 기술적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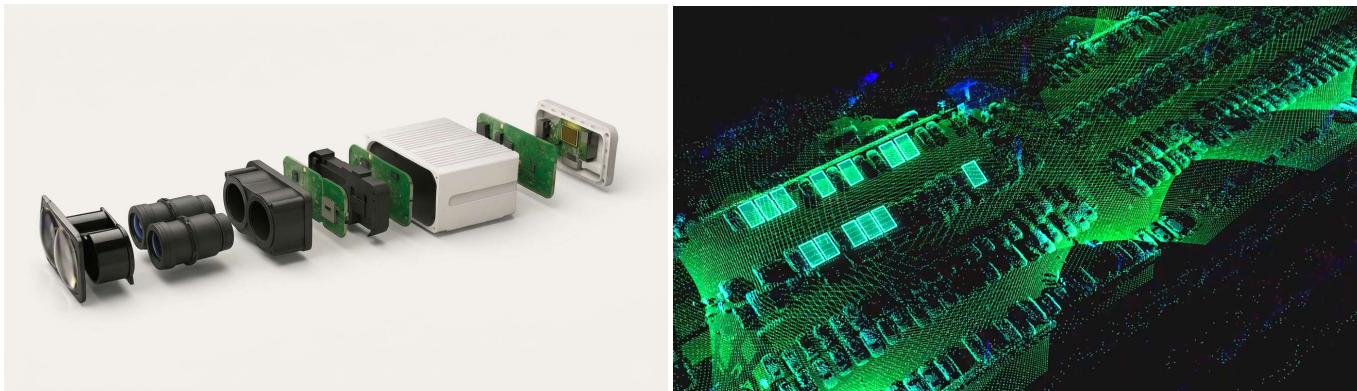
인프라 사업 관점에서 저희 에스오에스랩의 차별점은 뛰어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에스오에스랩의 라이다는 인프라 상시 운용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조입니다. 주력 제품군인 ML 시리즈는 3D 라이다로 완전 고정형 구조를 채택해 외부 진동과 충격에 강하며, 두 개의 칩과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된 간결한 구조로 소형화가 용이합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로 설계되어 기존 구조물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옥외 주차장처럼 24시간 운영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더불어 라이다는 카메라와 달리 어두운 환경과 악천후 조건에서도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레이더보다 높은 해상도의 3D 공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얼굴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녀 공공 인프라 시설에서의 카메라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는 소프트웨어·솔루션 역량도 에스오에스랩의 강점입니다. 저희의 데이터 솔루션은 라이다에서 수집한 고해상도 3차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해 주변 환경과 객체를 인지·추적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으로, 주차 안내 시스템(LPGS SPOT®)과 군중 혼잡도 분석(LCAS QMAP™)에 활용됩니다. 김해공항 현장에서 LCAS QMAP은 라이다 센서만으로 99.44%의 인식률을 기록했습니다.

(좌)ML-X의 하드웨어 구조, (우)라이다 기반 주차 안내 시스템(LPGS SPOT®)의 3차원 공간 데이터 인지 및 주차면 감지 화면



강릉 세계총회 기술시연에서 선보일 주요 시나리오와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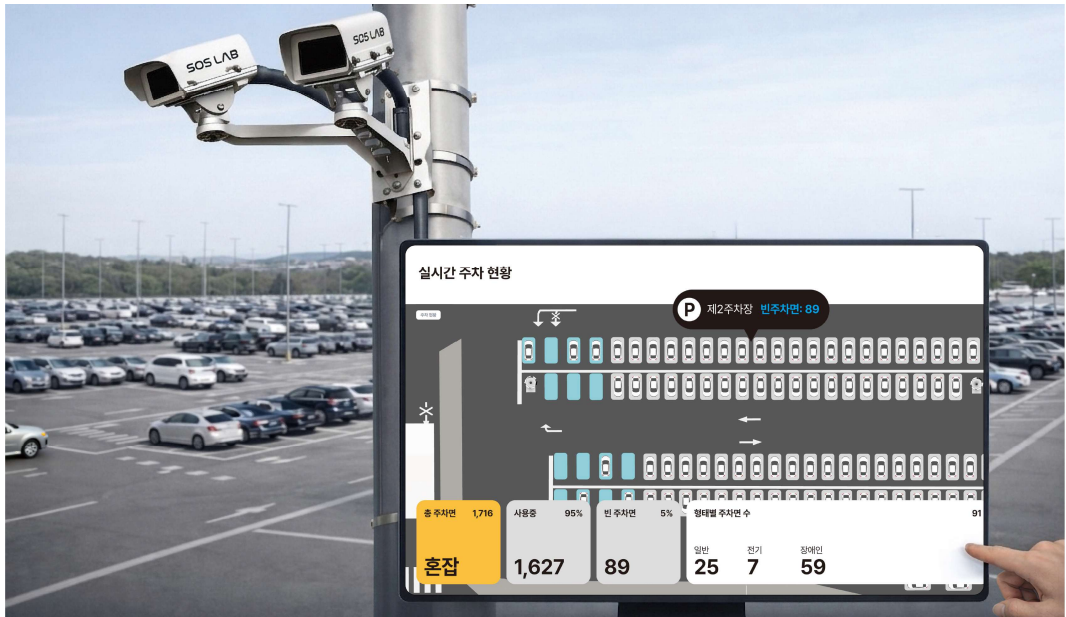
이번 총회에서는 에스오에스랩의 주차 안내 시스템인 'LPGS SPOT®'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 안내 시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PGS SPOT®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차량이 집중되는 혼잡한 주차 상황에서 빈자리 안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라이다 1대로 최대 62면의 주차면을 인식할 수 있어, 주차면마다 센서를 심는 기존 방식 대비 설치 물량, 시공 기간, 유지보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99.7%의 주차 점유 감지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의 진입과 출차를 1초 미만에 감지합니다. 대형 국제행사의 피크 타임처럼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조건에서 이 응답 속도는 곧 안내 정보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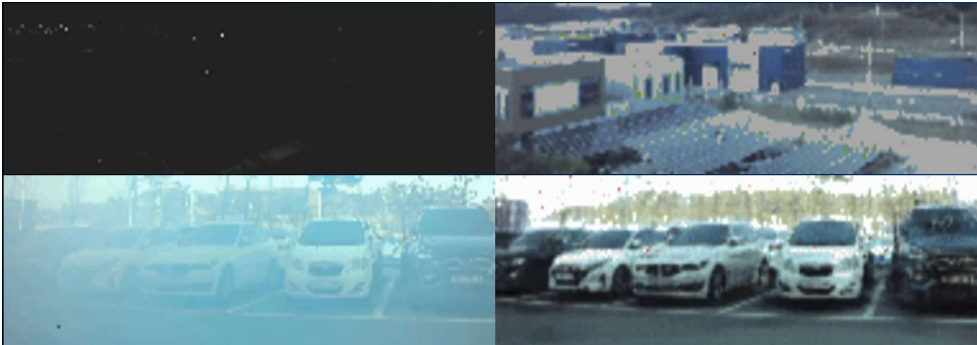
나아가 저희는 이 시스템을 향후 민간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대국민 서비스로 출시할 계획이며, AI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내 차 찾기, 혼잡도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차 안내 시스템(LPGS SPOT®) 서비스 개요



C-ITS 인프라 연동 및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을 어떻게 혁신하고 계신가요?

도로 교통 안전의 출발점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입니다. 저희 라이다 제품인 ML 시리즈의 경우 높은 해상도로 차량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하며,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악천후 조건에서도 정확도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ML-U는 딥러닝 기반 컬러화 기술을 통해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데이터를 구현합니다.



딥러닝 기반 컬러화 기술 예시

2023년 국내 공항을 시작으로 라이다 기반 인프라 솔루션을 구축했고, 2025년에는 다수의 국가기간시설 주차장으로 도입을 확대했으며, 이어 휴게소와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라이다 공급을 넓혀 왔습니다. 특히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과는 지난 6월 스마트톨링 시스템용 라이다 센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무정차로 요금을 납부하는 차세대 방식으로,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을 요금소 상단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정확히 식별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C-ITS는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 및 주변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강화해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센서는 시야가 가려지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도로변에 설치된 라이다는 교차로 전체를 조망하며 사각지대를 대신 봅니다. 이것이 C-ITS 환경에서 라이다가 맡게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피지컬AI 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공간지능은 AI가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피지컬 AI 구현의 기반이 되는 영역입니다. 라이다는 카메라 기반의 주변 환경을 정밀한 3차원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어 공간지능 구축에 필수적인 센서로 평가받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3D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AI가 현실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에스오에스랩만의 조직문화와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기술 혁신은 회의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과 끊임없는 개선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시장과 기술, 고객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도 큰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지만, 실행 방법은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시장을 직접 만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계획은 유연하게 바꾸되 목표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에스오에스랩은 실행이 가장 좋은 학습이라고 믿습니다. 실행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에스오에스랩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에스오에스랩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나은 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결국 혁신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에스오에스랩은 새로운 기술을 향한 호기심과 빠른 실행력, 결과를 통해 배우는 자세, 그리고 동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업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국내 라이더 산업을 개척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누구든 따라올 수 있지만, 혁신을 만들어 내는 문화는 쉽게 따라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오에스랩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강릉 세계총회를 발판 삼아,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2016년 창업 후 지난 10년을 국내 라이더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해 온 '0에서 1을 만드는 시기'로 정의합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증명해 온 이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100배의 가치를 확산하는 '1 to 100'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에스오에스랩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이더 제조를 넘어, 정밀한 리얼 3D 공간 데이터와 지능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설계하고, 생태계를 창조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와 주차공간을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모든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 인지 기술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에스오에스랩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온디바이스 반도체, 5W의 혁명 (주)딥엑스가 여는 피지컬시 인프라 시대

인공지능(AI)의 중심축이 거대한 데이터센터에서 로봇,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스마트 가전 등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온디바이스AI'와, 주변 환경을 직접 인식하고 판단하여 물리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피지컬시(Physical AI)'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 대한민국 팹리스 기업 (주)딥엑스(DEEPX)는 초저전력·고성능·저발열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시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딥엑스 김녹원 대표를 만나, 피지컬시 시대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보았다.



“물리적 공간을 지능화하는 국산 AI 반도체로 ITS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 (주)답엑스 김녹원 대표

답엑스는 어떤 비전을 품고 설립된 기업이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계신가요?

Monthly ITS 독자 여러분과 미래 교통·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지컬AI 인프라 기업 답엑스 대표 김녹원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은 데이터센터라는 가상 공간을 넘어 로봇, 자율이동체, 공장 설비, 가전 등 우리가 숨 쉬는 현실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스스로 연산하고 판단하는 ‘온디바이스AI(On-device AI)’와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즉각적인 동작으로 연결하는 ‘피지컬AI(Physical AI)’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차량, 자율주행 셔틀, 교통신호 및 보행자 안전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피지컬AI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장입니다.

저는 IBM T.J. 왓슨 연구소에서 NPU 연구를 시작한 이래, 브로드컴과 시스코를 거쳐 애플에서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탑재되는 프로세서 개발 및 대량 양산의 핵심 설계자로 참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테크 기업들에서 칩을 설계하고 양산했던 경험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 세계의 모든 기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고 답엑스를 창업했습니다.

답엑스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사물에 저전력·고효율의 지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도로 현장의 교통 CCTV,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동체, 드론, 단말기 등 엣지(Edge) 환경은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발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답엑스는 이러한 제약 상황 속에서도 높은 AI 연산 성능, 정교한 AI 정확도, 압도적인 전력 및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글로벌 피지컬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기존 GPU 중심 시장 대비 답엑스만의 초저전력·고성능 NPU(신경망처리장치) 기술이 갖는

핵심 경쟁력과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범용 연산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존의 CPU와 GPU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동할 때 불필요한 연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전력 소모가 극심하고 심각한 발열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AI 연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전체 연산의 90% 이상이 특정 행렬의 곱셈과 덧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답엑스는 AI 추론에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을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양산 중인 1세대 제품 'DX-M1'은 평균 2~3W의 초저전력만으로 구동되면서도, 경쟁사 대비 전력당 연산 효율을 최대 20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칩 다이(Die) 크기를 경쟁 아키텍처 대비 크게 줄이는 최적화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전체 시스템 제조 비용을 경쟁사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혁신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동 환경에서 타사 칩과 답엑스 칩 위에 배터리를 올려놓고 실시간 연산을 테스트했을 때, 타사 칩 위의 배터리는 과열로 녹아내린 반면 답엑스 칩 위의 배터리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독보적인 저발열 성능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효율·저발열 설계 기술은 삼성파운드리 5나노 최첨단 공정에서 91%라는 경이로운 생산 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져,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CES 혁신상에 선정된 답엑스의 AI 반도체 제품군





딥엑스는 롯데이노베이트와 국산 AI 반도체 양산 협력을 체결하였다.

스마트시티, 로보틱스, AI PC, 보안 관제 등 딥엑스의 AI 반도체 솔루션이 현재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거나 기대하는 주요 시장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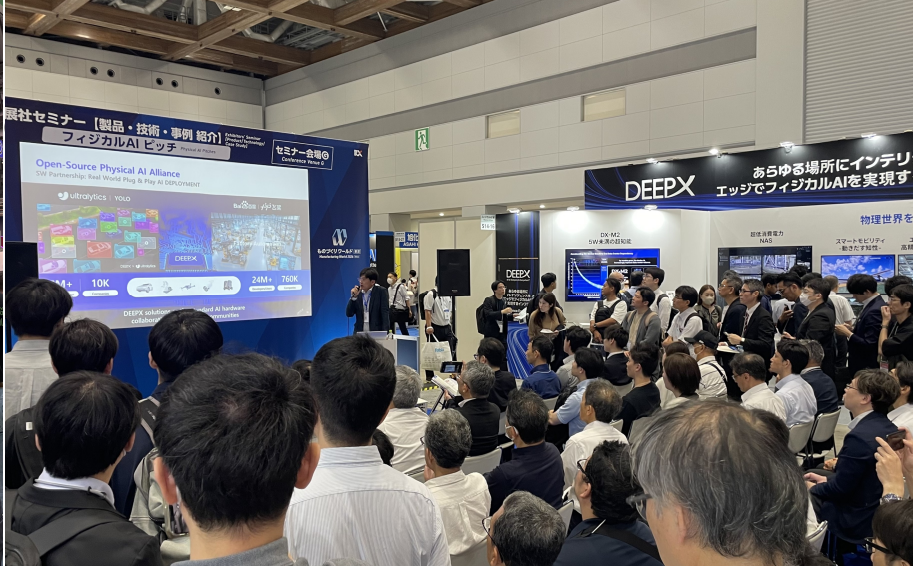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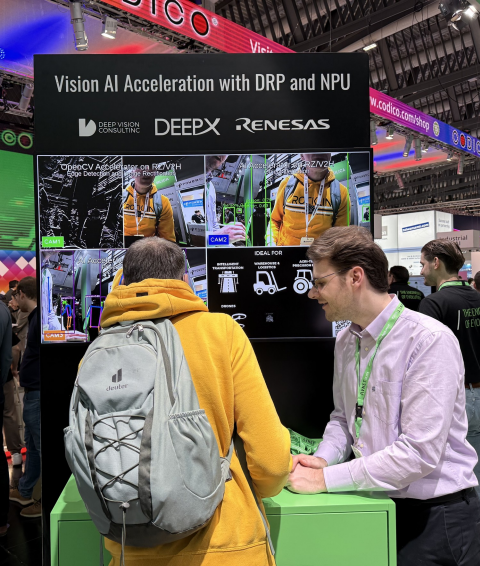
딥엑스는 양산 본격화 10개월 만에 글로벌 10여 개국, 8개 주요 산업 분야(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로보틱스, 보안 관제 등)에서 67건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및 ITS 시장 역시 2019년 7,271억 원에서 2025년 2조 2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딥엑스의 초저전력AI 반도체는 통신 지연을 없애고 데이터 전송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도로·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기기 시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딥엑스는 글로벌 ITS 전문 파트너사들과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와 한국도로공사는 DX-M1을 적용해 도로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교통 밀집 구간의 AI 엣지 카메라에 도입되어 클라우드 연결 없이 실시간 차량 인식 및 돌발 상황 탐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지자체와 함께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딥엑스 솔루션을 적용해 고속도로 사고 및 정체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분석하고 있습니다. 핀텔과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딥엑스 NPU를 결합한 국산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여, 기존 외산 GPU 기반 장비를 빠르게 대체하고 전력 및 원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 및 파트너사들과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딥엑스만의 시장 개척 전략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이 개발한 반도체 솔루션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단단한 장벽을 뚫고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생태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딥엑스는 전성비, 가격 경쟁력, 특히 경쟁력, 양산 능력, 생태계 형성이라는 고유의 '5대 제권 원칙'을 토대로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시회에서 AI 반도체 기술과 비전을 선보이는 답엑스

동일 소비 전력 조건에서 경쟁사 대비 20배 이상의 연산 효율을 입증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해 칩 원가와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500건 이상의 전방위 특허 방어막을 구축하여 기술 독점권을 보호하고, 최첨단 공정에서 90% 이상의 수율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20여 개 대형 반도체 유통 체인망을 확보하고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해 인프라 표준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답엑스는 제품 양산 이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사에 샘플 칩을 선제적으로 배포하여 4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고객사와 기술 설계 검증(PoC)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그 결과, 양산 시작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구매 계약(PO)이 성사되는 폭발적인 플랫폼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은 산업 고객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 7,300만 대를 기록한, 글로벌 최대 SBC(싱글보드컴퓨터) 기업인 영국 라즈베리파이 본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부터 임베디드 시스템, IoT, 로봇틱스까지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개방형 플랫폼에 답엑스의 NPU를 결합한 AI 가속 보드를 출시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라즈베리파이 위에서 AI 모델을 검증한 뒤 곧바로 산업용 카메라, 로봇, 스마트팩토리, 엣지 게이트웨이 같은 실제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자가 만들고, 기업·연구기관이 PoC로 검증하고, 이를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 협력의 목표이며, 말하자면 피지컬AI 시대의 표준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답엑스의 대표 제품군



고객사들이 기존 AI 모델과 시스템을 딥엑스 솔루션으로 손쉽게 전환·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개발 환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AI 반도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기존에 만든 AI 모델을 얼마나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딥엑스는 엔비디아 CUDA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모델을 코드 재설계 없이 즉시 이식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 'DX-AS(DEEPX AI Suite)'를 구축했습니다.

DX-AS는 기존 AI 모델을 딥엑스 NPU에 맞게 자율 변환하는 DX-COM, 실시간 추론 연산을 최우선으로 제어하는 DX-RT, 사전 학습된 다양한 AI 모델과 성능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DX-ModelZoo, 객체 검출 및 안면 인식 등 산업 현장용 예제 코드를 지원하는 DX-APP, 그리고 영상 데이터의 전처리·추론·후처리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DX-Stream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AI 모델 변환과 배포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는 '에이전트 기반 개발' 기능까지 베타 형태로 추가하여, 개발자의 편의성과 시스템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개발 환경을 넘어, 딥엑스는 이미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를 확보한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들과 손을 잡는 '오픈 피지컬AI'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비전 AI 모델인 Ultralytics YOL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로봇틱스·산업용 카메라·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에서 이미 YOLO 모델로 개발해 온 전 세계 개발자들이 별도의 재작업 없이 'format=deepx' 명령 한 줄만으로 딥엑스 NPU에 곧바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백만 명 이상의 개발자를 보유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 PaddlePaddle,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생태계와의 협력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통합을 넘어, AI를 클라우드가 아닌 현실 세계로 확장하려는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딥엑스의 NPU를 표준 실행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칩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복잡한 전환 과정 없이 기존 AI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의 기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딥엑스의 기술력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거둔 성과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딥엑스는 창업 초기부터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글로벌 무대를 겨냥해왔습니다. 반도체는 태생적으로 글로벌 산업이라, 국내 시장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산에 돌입한 이래 2년간 대표인 저부터 252만 km, 지구 63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직접 돌며 전 세계 고객사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아브넷 실리카와 3개월 만에 약 2,500만 유로(약 360억 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대만에서는 어드밴텍·에이온·Apacer·MSI 등 산업용 PC·워크스테이션·서버 기업 20여 곳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이온과는 올해 컴퓨텍스 타이베이 현장에서 3년간의 글로벌 엠티시 양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자국산 칩의 성능·발열·효율 한계를 이유로 답엑스를 선택했고, 그중 한 곳은 스마트 팩토리용으로 4만 개 규모의 초도 양산을 발주했습니다.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 면에서는 포브스가 집계한 미국 NPU 특허 보유 순위 1위에 올랐고, 그 IP 가치는 약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컴퓨텍스 타이베이에서는 400여 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혁신 기술상을 수상했고, 글로벌 최대 IT·전자 이벤트인 CES에서는 2024년 컴퓨터 하드웨어·임베디드 기술·로봇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휩쓸며 AI 반도체 기업 최초 3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AI 반도체 기업 최초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이노베이터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전자산업 전문지 EE타임스의 'Silicon 100'에는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 2025년에는 EE타임스 산하 Electronic Products가 주관하는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49회를 맞은 이 상은 그동안 NXP·르네사스·마벨·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글로벌 반도체 리더들이 받아온 자리입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 설리번으로부터는 'AI 반도체 산업 최고의 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CES 2026에서는 컴퓨팅 하드웨어·임베디드 기술 2개 부문에서 다시 한번 혁신상을 수상하며, CES 공식 가이드에 엔비디아·삼성·퀄컴과 나란히 핵심 AI 이노베이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고, 글로벌 반도체 매체·정부·국제기구로부터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는 흔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답엑스만의 특별한 조직문화와 핵심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의 현장은 보급선도 구원 부대도 없이, 각자가 낙하산 하나만 매고 적진에 뛰어내린 상태와 같습니다. 소수의 인력이 수만 명의 인력을 지닌 거대 테크 공룡들과 싸워 전선을 뚫어내야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는 조직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답엑스에는 기존의 권위적인 임원 직급 체계가 없으며, 완벽하게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플랫(Flat) 조직을 고수합니다. 반도체 설계자, AI 알고리즘 연구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부서 간 장벽 없이 데이터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유하고 밀접하게 융합합니다. 이러한 융합형 조직 문화와 장인정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첫 양산 제품임에도 최첨단 5나노 공정에서 90% 이상의 수율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딥엑스가 그려갈 미래 모습과 함께, 월간지 독자 및 산업계 관계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피지컬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180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딥엑스는 1세대 제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온디바이스 생성형AI 구동을 위한 2세대 AI 반도체 'DX-M2'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DX-M2는 세계 최초 수준으로 삼성파운드리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적용하며, 단 5W 미만의 전력 소모로 최대 80 TOPS(초당 80조 회 연산)의 폭발적인 연산 성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200억 개 매개변수 규모의 언어 모델을 초당 20~30단어 속도로 구동하고, MoE(전문가 혼합) 압축 기술을 결합해 최대 1,000억 개 매개변수급 대형 모델까지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의 도움 없이도 가전, 교통제어기, 자율주행차, 서비스 로봇이 고성능 언어·비전 AI를 자체 구동하게 됩니다.

피지컬AI와 무인 자동화 영역은 전력 소모, 발열, 반응 지연이라는 물리적 장벽 때문에 아직 특정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지 못한 기회의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와 교통 체계 현장에 국산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피지컬AI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도로 인프라와 최첨단 자율주행 차량마다 자랑스러운 국산 반도체 로고가 새겨져 힘차게 가동되는 그날까지, 딥엑스는 최선두에서 특공대원의 자세로 끝없이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 심볼 공모전과 생일 축하 행사로 구성원 간 창의성과 소통을 이어가는 딥엑스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국토교통부, 2026. 7. 7.(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득하여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 레벨3(유인) :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무인) :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여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하가요건을 참고하여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MRC*,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ADS(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하였다.

* 위험완화상태(Minimum Risk Condition) : 충돌 위험을 줄인 안정적이고 정지된 상태

**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 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의 제작·판매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6.24)

그 밖의 ADS 국제기준의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여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마련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에 한하여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외에도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주행실적)** 15,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 마련
*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합산하여 요건 달성 가능(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 **(원격관제)** 비상시 대응(원격 비상정지 등)을 위해 주행 교통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 **(안전 설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하차 요청 버튼 등),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 의무화
- **(MRC 전략)** 고장, 운행영역(ODD) 이탈 등 발생 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안전하게 정지 필요
- **(사고 대응)** 원격 지원(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한 운행 보조) 또는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할 것이며,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되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7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 2026. 7. 9.(목)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 (‘24년 도로만족도조사) “휴게소 음식 비싸다”라는 답변 66.9%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

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33%(매출액 대비)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기존 수수료 대비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한다.

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예: 냉난방, 공기질 개선 등)에 쓰이도록 하여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휴게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❶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언제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라·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 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❷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가도록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종과 비교해도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❸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

개편된 휴게소는 연내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27) 전이라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 (신설) 합천호(상·하행), 월출산 / (계약종료)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매각공고, ~9.30)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5.7)*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국토부 5.7)

아울러,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엔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면서,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고 그 자리에 오직 국민의 편익만 채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첫 K-AI 시티, 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2026. 7. 14.(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 14일 물류산업의 AI 전환(AI)*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업무 절차와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전환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하여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 안정성 등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하여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확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내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함께 기업이 우편집중국에서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롤테이너(Rolltainer) 자동 이송 기술, 초소형 소포 자동구분 기술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4일(화)부터 8월 21일(금)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실증계획, 현장 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실증사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시는 미래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 2026. 7. 14.(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전 세계의 정부·도시·기업·전문가·시민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부산으로 개최지를 변경한 이후 전체 참관객 4만 2,958명, 참가 업체 457개사, 해외 54개국이 참여하는 등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로 발돋움하여, 올해 역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다.

행사는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I) 기조에 맞추어 'K-AI 시티' 정책을 선보이는 첫 무대로, 'Beyond Smart City, Into AI City(스마트시티를 넘어, AI 도시로)'라는 행사 슬로건에 맞게, 스마트시티부터 AI 시티까지 폭넓은 도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K-AI 시티는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모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하여「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 개막행사, 콘퍼런스, WSCE 어워즈, 기업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내외 정부·도시·기업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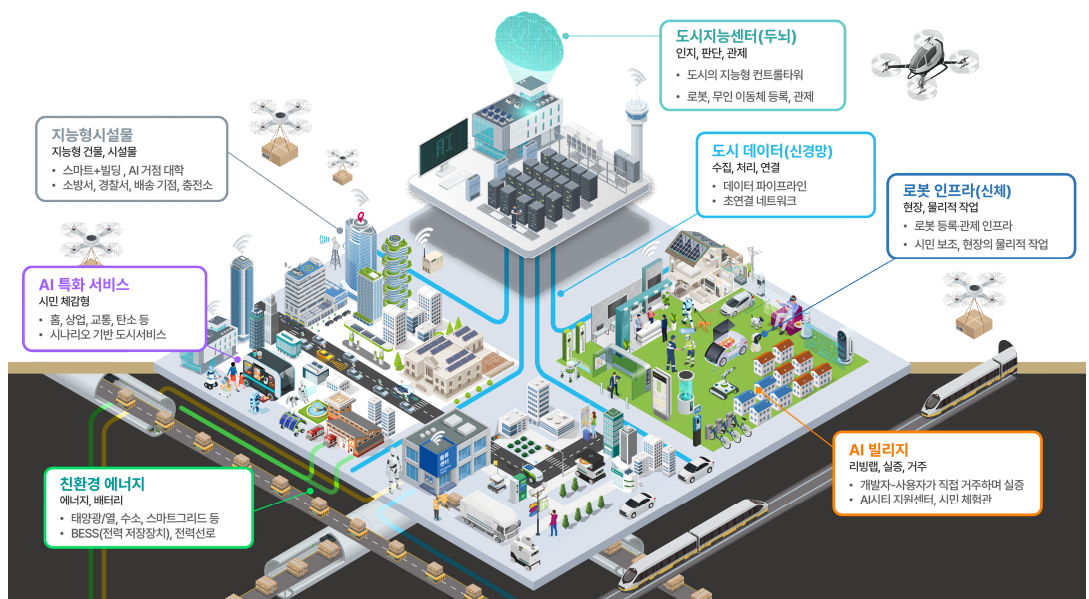
전시 분야는 AI·스마트시티, 건설·인프라, 모빌리티·교통, 에너지·환경 등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특히 AI 특화 시범도시로서 천안·아산과 원주가 AI 시티 공동관으로 참여해 구성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스마트시티와 AI시티, 인공지능(Physical-Agent AI), 미래 모빌리티 등 글로벌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K-AI 도시 정책 콘퍼런스'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국내외 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구매 상담회, 대기업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으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누리집에서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orldsmartcityexpo.com>)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기술을 통해 경험하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국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전반에 더욱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국토교통부, 2026. 7. 16.(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범운용모델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였다.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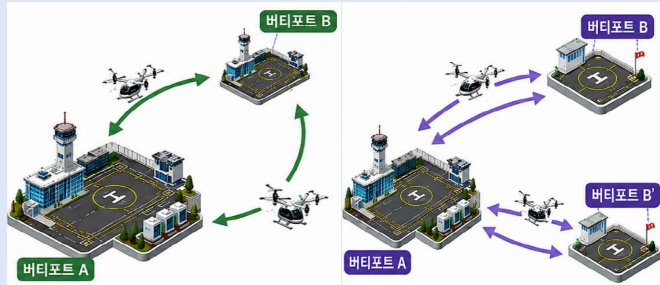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비스모델) 단순한 운항조건이 가능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하여 운영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A to A 모델>



<A to B 모델>

※ **(관광형)**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벤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
(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
(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시의 주요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

- ② **(기체 및 감항인증)**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 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
- ③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하여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
 -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한정
 - *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
- ④ **(종사자·사업자)**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 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 정비 관한 특례 부여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적용
 - *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
- ⑤ **(관제·벤티포트)** 관제구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국토부, 군 등)이 관제 수행, 비관제구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관제)가 비행정보 제공
 - 필수시설(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을 갖춘 벤티포트 설치 의무
- ⑥ **(보안·보험)**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 보험은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 7. 30.(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사업 수요기관(지방정부 등)과 공급기업(기업·대학 등)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스마트도시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전면 개편한다.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털이다. 이번 포털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방정부-기업 간 온라인·양방향 매칭 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를 도입하고, '솔루션 마켓'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 3-③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개방형 매칭 플랫폼으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① (G2B) 지방정부는 도시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랩'에 수요과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업은 보유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B2G)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도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장소가 필요하거나 도시데이터(교통 관제, 안전 분야 등)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오픈랩'에 등록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B2B)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서비스를 기획(컨소시엄 구성)하는 경우에도 '오픈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솔루션 마켓*'의 경우 특정 주제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여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설명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온라인 전시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한다.

*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솔루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공간

이와 더불어, 해외 수요기관에서도 국내 기업의 제품·솔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솔루션 마켓'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UI 개편과 함께 검색 기능 추가, 메뉴구조 체계화 등 편의성 기능 강화와 시스템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동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2026. 7.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의 수급·교육훈련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조종사가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운항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22호, 2026. 7.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과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와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신 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7월은 글로벌 차원의 안전·디지털 정책 정립과 더불어 지자체 현장 중심의 AI 및 C-ITS 실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한 달이었다.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버스 실노선 운행, C-V2X 대중교통 우선신호, AI 기반 생활밀착형 안전 관제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개막 100일을 앞둔 강릉 ITS 세계총회를 기점으로 첨단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인 상용화와 기술 고도화가 더욱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국내 토픽

구미시, “국가산업단 교통 시로 뚫는다”...106억 들여 ITS 구축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도입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 구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59억원을 포함한 총 106억원을 투입, ITS 고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물류 수송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쿠키뉴스, 2026.7.7.)

밀양시, AI 행정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기틀 마련

경남 밀양시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밀양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핵심에 대해 “기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스마트 솔루션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엣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도시 계획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 공유 시스템, 복합 센터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공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7.7.)

인천 송도 11-1공구에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2028년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사업지인 송도 11-1공구에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주요 공공기능에 ICT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CCTV, 스마트 횡단보도, 쿨링미스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8년까지 스마트도시 기반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NGO신문, 2026.7.8.)

"자율주행·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모든 것"...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100일 앞으로

오는 10월 19일 개막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행사가 열릴 강릉컨벤션센터가 다음 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릉시는 컨벤션센터와 동계올림픽 시설 등을 연계해 문화 행사와 ITS 기술 시연 및 시찰 등을 준비 중이며, 전체 전시 부스의 93.5%가 마감되는 등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시는 90여 개국에서 연인원 20만 명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MBC강원영동, 2026.7.9.)

동두천시, 경기도 'CCTV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CCTV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스마트 관제 역량을 입증했다. 동두천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등·하교 집중관제 운영'을 주제로 아동 안전 취약시간대 집중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각 개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한 이지수 주무관은 전문성과 발표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뉴스투데이, 2026.7.9.)

AI·방산·미래차 시대 '시험인증 주권' 경쟁... KOLAS, 국가 경쟁력 핵심 인프라로 부상

AI, 미래모빌리티, K-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 신뢰성과 시험인증 확보가 핵심 수출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제 인정체계가 'Global ACI'로 통합되며 한국인증기구(KOLAS)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적합성평가 및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KOLAS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저데일리, 2026.7.10.)

김제시, 2027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전북 김제시가 2027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고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한편, 스마트 냉난방기와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 등 승강장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도심 내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일원에 268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한스경제, 2026.7.11.)

용인시, 초교 통학로 17곳에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경기 용인시가 오는 9월까지 10억 4천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통학로 17곳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로 보행자와 차량을 실시간 추적해 보행 시간이 부족한 교통약자를 감지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위험 상황 시 전광판과 음성 경고를 전파해 사고를 예방한다. 앞서 지난 6월까지 29곳에 구축을 마친 용인시는 향후 노인보호구역 10곳으로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6.7.14.)

시가 미아·치매노인 몇초 만에 찾아내...안양시 첨단행정 '최우수'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방범 CCTV 분야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AI·복합 인지 기술 기반 실종자 동선 추적 및 구조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의 사진이나 의상 특징을 입력하면 시가 수천 대의 CCTV를 실시간 분석해 이동 경로를 예측·추적하는 첨단 기술이다. 분석된 위치와 동선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에 즉시 공유되어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며, 시는 향후 데이터 통합 관제 역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일보, 2026.7.13.)

ITS 세계총회 D-100... 강릉시, 시민사회와 결의대회 열고 성공 개최 다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강릉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 참여와 손님맞이 준비를 다짐하며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첨단 ITS 기술 전시와 미래 모빌리티 시연,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강원신문, 2026.7.16.)

안양시, 폴란드 통계청 방문단에 스마트도시 기술 선포

안양시가 15일 폴란드 통계청장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운영 모델을 선보였다. KDI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일행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둘러보고 레벨4 자율주행버스 탑승을 비롯해 AI 영상분석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다양한 행정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데이터가 미래 도시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안양시가 축적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뜻을 전했다. (비즈니스월드, 2026.7.15.)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월 256건 수사행정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올 상반기 시내 방범용 CCTV 영상 1,536건을 수사와 행정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교통조사가 약 38%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강력범죄, 실종사건 등 위급 상황의 초동대응에 활용되어 77%의 사건 완료율을 나타냈다. 현재 1,983곳에서 6,45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인 남양주시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시내 범죄 예방 및 사고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6.7.15.)

서울 택시와 로보택시, 공존의 길은 어디인가

서울 택시 산업이 자율주행 기술의 접목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요금체계, 면허제도, 번호판 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로보택시의 운임과 사업 유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택시 면허 활용 및 플랫폼 사업 연계 등 현실적인 협력 모델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로보택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명확한 법·제도 정비, 안전성 확보,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상생 및 고용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신문, 2026.7.15.)

용인특례시,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 '용인A01번' 시승식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인 '용인A01번' 시승식을 갖고, 올 3월부터 이어진 시험운행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역,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오는 27일부터 14인승 중형버스 2대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번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중교통 소외 지역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상 운송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2026.7.19.)

수원시, '2026 대한민국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에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알렸다

수원특례시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제6회 대한민국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에 참가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다양한 드론 활용 정책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홍보부스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일원에서 시작되는 도심 공원형 드론배송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수원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종합뉴스, 2026.7.18.)

청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미래 10년 스마트 교통 로드맵 확정

충북 청주시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의 스마트 교통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는 단기(2026~2028년)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및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확충하고, 중장기(2029~2035년)적으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세대 ITS(C-ITS),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반 정체 제어, 스마트 횡단보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등 도시 특성에 맞춘 4개 영역의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도일보, 2026.7.22.)

해외 토픽

EU, 차량에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기술 의무화

유럽연합(EU)의 일반안전법규(General Safety Regulation, GSR) 중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관련 요건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첨단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ADDW)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이 규정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과 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전역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이 기본 안전 사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tti, 2026.7.7.)

독일 베를린시, 대중교통 우선신호 위해 C-ITS 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최초 도입

독일 베를린시 모빌리티·교통·기후보호·환경부(SenMVKU)가 슈테글리츠 솔로스슈트라세 구간 신호등 8곳에 대중교통 우선신호 제어를 위한 C-ITS(협력형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단방향 신호 요청에 그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ITS-G5 무선 표준을 활용한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구현함으로써, 버스와 신호 인프라 간 정밀한 신호 연동과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베를린 대중교통공사(BVG)는 7월 9일부터 시범 운행 및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를린시는 향후 긴급차량 우선신호, 우회전 자전거 사고 예방,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등으로 C-ITS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베를린시 모빌리티·교통·기후보호·환경부, 2026.7.10.)

싱가포르, 대중교통·항만·항공·물류 전반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 가속화

싱가포르 정부가 교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AV)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 푹골 지역의 자율주행 셔틀 및 마리나베이·윈노스 일대의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하며, 투아스 신항만과 창이공항에서는 무인 자동유도차량(AGV)과 자율주행 수하물 견인차 등을 배치해 원격 관제 기반의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물류 및 미화 분야에도 자율주행 운송차와 무인 노면청소차를 시험 도입해 공급망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 2026.7.12.)

웨이모, 워싱턴 D.C. 로보택시 승인 시 수백 명 고용·투자 확대 계획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가 워싱턴 D.C. 시의회와 로보택시 승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서비스 센터 구축 및 대규모 고용 창출 계획을 밝혔다. 웨이모는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D.C. 내 서비스 센터와 충전 시설을 구축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차량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반면 지역 노동조합과 운전자 단체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저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Axios, 2026.7.13.)

우즈베키스탄·라트비아, 2027년 도로 운송 허가권 쿼터 2배 확대 합의

우즈베키스탄과 라트비아 도로 운송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양국이 2027년 도로 화물 운송 허가권 쿼터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송 기업들의 라트비아 및 유럽연합(EU) 시장 대상 화물 운송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추가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물류 분야 디지털화, 통관 절차 개선,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다자 허가제 통합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트렌드 뉴스 에이전시, 2026.7.15.)

홍콩 ASTRI·시티버스, 카이탁 구역서 시내버스 C-V2X 실증 사업 개시

홍콩 응용과학기술연구소(ASTRI)와 시티버스(Citybus)가 카이탁 개발구역에서 이층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셀룰러 기반 차량-사물 통신(C-V2X) 실증 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콩 최초로 노선버스에 C-V2X 기술을 적용해 도로변 스마트 기지국(RSU) 및 정부 데이터 포털과 연계하고, 실시간 교통 신호와 도로 상황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C-V2X 기술을 통해 운전 안전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STRI / PR Newswire, 2026.7.6.)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 디지털 트윈 사회 구현 위한 '플라토 비전 2026'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이 3D 도시 모델 정비·활용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플라토(Project PLATEAU)'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 정착을 위한 '플라토 비전 2026'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데이터 정비·갱신 효율화, 서비스 구현 추진, 해외 진출을 3대 핵심 항목으로 설정하고, AI 생성 데이터 도입과 3D 도시 모델 범위 확장을 통해 최적의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성·스마트폰 이미지와 AI를 결합한 3D 도시 모델 자동 생성 및 텍스처 부여 기술을 개발해 모델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의 자율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2026.7.17.)

태국 교통부, EU-아세안 기업인단과 회담... 'Safe & Green Transport' 및 미래 모빌리티 협력 논의

태국 교통부가 EU-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실(EU-ABC) 및 유럽 기업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Safe & Green Transport'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교통 인프라 발전 및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정부는 2029~2030년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UN 안전 기준 도입을 확대하고, 레벨 3~5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uropean Norm 중심의 철도 표준화,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 전기차 보급 및 탄소 감축 등 친환경·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태국 교통부, 2026.7.17.)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7.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2026년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369,300,000	2026. 08. 07.
일반용역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재공고)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7,100,000	2026. 08. 11.
공사	국도36호선 세종시 등 3개소 결빙취약구간 국도ITS 구축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936,364,000	2026. 08. 12.
일반용역	제3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00,000,000	2026. 08. 25.
일반용역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용역 (긴급)	(재)지능형자동차부품 진흥원	150,000,000	2026. 08. 11.

R&D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사업규모	입찰마감일
R&D	2026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제2차 시행 공고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內 14개 연구개발과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총 1,130백만원	2026. 08. 10.
R&D	2026년미래차안전도전기술개발사업(융합탐색) 신규과제공고	경찰청	총 8억원 이내	2026. 08. 10.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용역 (긴급)

일반사항

과 업 명 :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기 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소요예산 : 금150,000,000원 정도(금일역오천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과업목적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수행중인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 시험 기반구축』 과제에서 구축되는 VILS 가상환경시험장비들을 활용하여 실내 VILS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표준 도로망(ASAM OpenDRIVE) 및 3D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최신성 및 선형 연속성이 미비한 구간은 이동측량(MMS) 방식의 실측 데이터로 보완·후보정하여 고정밀 입력 소스를 마련하고, 이를 표준 규격의 정적 도로망과 3D 가상 주행환경으로 구현

사업내용

- 과업대상 구간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데이터 구축
- 후보정된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곡률·헤딩 연속성과 차로·표지 등 도로 요소를 보존한 ASAM OpenDRIVE 표준규격의 정적 도로망을 작성
- 표준 도로망과 동일한 좌표를 기준으로 건물·도로·시설물·식생 등 3D 객체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

문의처

과업문의 김혜지(053-670-7919), 입찰문의 손형일 (053-670-7814)

ITSK
NEWSITS Korea,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2개 부문 최고등급(S등급) 달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산업맞춤형(정부전략) 공동훈련센터와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사업 수행 이후 누적 총 7회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ITS Korea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서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AI 특화*** 분야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정책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첨단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재직자의 신기술 직무전환과 산업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모빌리티 산업의 AX, 즉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 평가는 전국 총 106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ITS Korea는 협약기업 훈련 참여율, 참여기업 만족도, 산업 수요 및 진단·로드맵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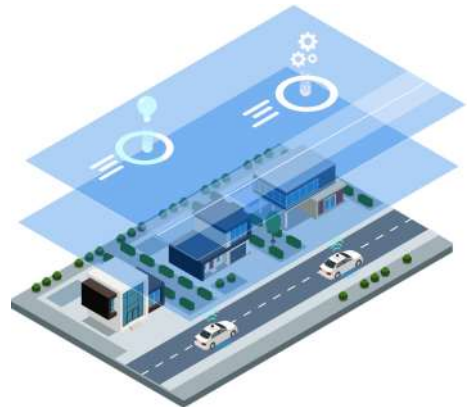
현재 협회는 AI,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약 1,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 개시 이후 누적 교육생 12,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ITS Korea는 올해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며, 모빌리티 산업의 AX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AX 일반 및 전문분야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요 과정에는 ▲바이브 코딩 기반 모빌리티 AX 실전 ▲비전 및 데이터 AI 활용 역량 강화 ▲AX를 위한 데이터 중심 운영 기술 ▲AI 기반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등이 포함됐다.

ITS Korea는 이를 통해 모빌리티 기업 재직자가 AI 기술을 실제 업무와 서비스 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청희 ITS Korea 회장은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 두 부문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ITS Korea의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와 연계해 AI·모빌리티 융합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첨단교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2026년 8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CCTV 입력정보 처리방식에 따른 영상처리	8.05(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120원
2	ITS 사업 감리 업무 요령(초급)	8.07(금)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2,110원
3	교통정보 빅데이터 DB 설계	8.10(월)~11(화)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3,790원
4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보호	8.11(화)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250원
5	자율주행 정책 및 기술	8.12(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3,590원
6	영상기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8.13(목) 1일(05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19,440원
7	공유 모빌리티 기술	8.14(금)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90원
8	ITS 사업 감리 업무 요령 (중급)	8.18(화)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2,110원
9	AI 기반 자율주행 딥러닝 인지 기술 구현	8.18(화)~20(목) 3일(21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0	ITS 무선장비 구축 및 운용방안	8.19(수)~20(목)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2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5,690원
11	AX를 위한 데이터 중심 운영 기술	8.19(수)~21(금) 3일(18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2	측위 기술과 ITS 시스템 활용	8.21(금) 1일(05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0,340원
13	C-V2X 표준	8.25(화)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0,970원
14	디지털트윈 구축용 Mesoscopic 모델 구축 실습(초급)	8.25(화)~26(수)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5,110원
15	Apache Kafka 활용 교통센터데이터 모니터링	8.26(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7,500원
16	미래 교통 UAM 기술	8.27(목) 1일(0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4,400원
17	디지털트윈 구축용 Mesoscopic 모델 구축 실습(중급)	8.27(목)~28(금)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5,110원
18	자율주행 검증 평가구현 기술	8.31(월)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20원